◈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조선근

감사로 마친 제2회 목회자세미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복음설교의 확산을 품고

유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개회예배 시작과 더불어 자리를 잡았고 그 숫자는 모든 강의가 끝나기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수많은 세미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시기적으로 다른 세미나들과 중복되는 와중에서도 지난 제1회 세미나의 인원을 상회하는 교역자들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강의 내용과 세미나 진행,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성도들의 섬김에 대단히 만족했고, 그중 대다수가 제3회 세미나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참가자들 중에는 '성공적 목회이야기'를 통해 다뤄 열매를 따서 주는 듯하지만 결국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일회성 세미나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본질과 복음 중심성, 그리고 목회자적 자질의 근본적 측면들을 다루는 이 목회자세미나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충현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사하면서 이 세미나가 계속되어 보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로 꾸준히 자리잡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회때의 경험을 살린 모든 준비위원들의 진행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도 자연스러웠다. 이에 따라 세미나 전체가 질서있고 차분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성도들은 이 세미나가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확신하면서, 이 세미나가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의 장단이 갱신되고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제3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는 2000년 2월에 '영성의 회복 : 영성과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강사는 Steven Childers('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Transforming Power of Gospel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실천신학 교수로서 세계 각지에서 교회 개척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 능력있는 강의 사역을 펼치는 중) 등으로 내정되어 있다.

다음주일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
성찬식 · 기념음악예배

다음 주일(9월 5일)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이다. 그리고 1-5부 예배시에는 99년도 제5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이 교회를 46년 동안 심으시고 키워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하겠고, 특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의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다. 한편, 교회 설립 기념 찬양은 벧엘 및 실로암 연합찬양대(지휘 : 강임구, 오르간 : 한경숙, 독창 : 오지명, 이재욱, 이규원), 그리고 벧엘오케스트라가 담당할 예정이며 연주곡은 천지창조 제1부 12곡이다.

1999-2000
겨울 단기선교 일정 조정
단원 모집 오늘까지

선교위원회에서는 총 8개팀 77명의 단기선교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는 오늘까지 선교위원회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번, 선교관 4층)로 문의하면 된다.

국 가	인원	목 적	사역기간
스리랑카	15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4일-1월 24일
방글라데시	10명	단기선교	1999년 12월 9일-12월 21일
수 단	10명	의료선교	1999년 1월 20일-2월 2일
수리남	7명	단기선교	1999년 1월 15일-1월 29일
몽 골	5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1일-1월 25일
인 도	10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9일-2월 1일
파키스탄	10명	단기선교	2000년 2월 1일-2월 13일
베트남	10명	선교훈련	2000년 2월 16일-2월 26일

*항공사 사정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도해 주십시오!
군전도회 군인신자 양육

군전도회는 군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민족 복음화를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청년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목적에서 군인신자 양육계획을 세우고 기도 중 실행해 가고 있다. 곧,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로부터 통보받은 연결신자를 지역 부대별로 분류하여 사랑의 10대 운동(영적 후원자를 통한 일대일 양육)을 통해 양육하고 그들이 제대하면 본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대상자 목표는 99년도에만 250명에 달한다. 성도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이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거듭나는 은총 가운데로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2학기 성경연구원 개강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찬양대원양성부, 교사양성부, 주간성경공부, 그리고 직분자양육반 등이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찬양대원양성부는 8월 3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20분에, 교사양성부는 9월 5일(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에, 주간성경공부는 9월 7일(화)부터 매주 화 · 수 · 목요일에, 그리고 직분자 양육반(권사 여성구역장 권찰반, 남성구역장반, 안수집사반: 안수집사반은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은 9월 15일(수)부터 매주 수요1부 및 2부 예배후에 진행된다. 말씀에 대한 훈련, 교사 및 찬양대원, 그리고 구역의 일꾼 등의 직분에 대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성도들은 모든 강사와 강의 내용을 위한 기도를 통해 성경연구원의 모든 과정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온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99-2학기
선교훈련원 9월 4일 개강
전도훈련원 3차 9월 8일 개강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선교단의 필수 훈련과정으로 정착한 선교훈련원(LMTC) 제2학기 과정이 9월 4일(토) 오후 5시에 베다니홀에서 개강된다. 그리고 이 과정 중 포함되어 있는 선교정탐 과정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겨울단기선교단에 참가하기를 원하거나 평신도 선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수료자들에게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평신도선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9월 8일(수) 오후 2시에는 99년도 제2학기 전도훈련원이 개강된다. 장소는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이며, 강의는 전도의 의의 및 구체적 방법 등 전도이론과 수회에 걸친 전도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전도의 역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접수는 교육국(구내전화 473번, 교육관 1층)에서 받는다.

9월의 주요행사

8월 31일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9월 4일	선교훈련원 개강
9월 5일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 제5차 성찬식 교사양성부 개강
9월 7일	주간성경공부 개강
9월 8일	제3차 전도훈련원 개강
9월 12일	하반기 장학금 지급
9월 14일	교구영성훈련 시작
9월 15일	직분자양성반 개강
9월 16일	피택자 교육 종강

강 해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알고 행할 것

(이사야 46:8-13)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바벨론의 신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참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 자신의 부족을 알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 (8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 (12절)

인생은 자신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면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잘한 것만 기억하고 교만하게 되면 믿음이 내리막길에 서게 됩니다.

인생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미 받은 복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지식, 물질, 기술, 권세 등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얼마 동안은 바로 쓰는 듯하다가 잘못 사용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강한 힘을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가까이 하는 데 잘못 사용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또 잔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투정하는 자체가 죄악이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이라고 우기는 12절의 '완악함'은 때가 오면 매를 맞고 망하는 불행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하여 패역하고 완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나타나시면 정치가, 사업가, 교육자들에게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허물이 많다" 이 정도이겠습니까? "패역한 무리들아" 이런 선언이 떨어질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몽둥이가 따라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범죄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선을 행할지언정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완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선은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바로 사는 동안에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던 과거에는 어두워서 완악한 죄까지 범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깨달아지면 핑계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2.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9-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마지막에 어떤 상을 받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동안은 잘 사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는 멸망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를 더듬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일이면 어디에 가겠다는 계획없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본토를 떠났다'는 말은 구습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친척을 떠났다'는 말은 인정을 떠나서 공의를 따라 갔다는 뜻입니다.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말은 신상들을 만들던 그 아버지의 불의한 사업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되면 가난하게 될 것이고 친척을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외로워지고 위태한 지경에 이를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풍습과 언어가 다르고 또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1년, 2년, 3년 사는 동안에 그곳에 에덴동산처럼 변하였습니다. 굶던 동네가 아브라함이 오니까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남는 동네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성공하여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걸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잘 자라는 예쁜 꽃나무를 뽑아서 사막에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효자로서 집안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연약한 꽃나무를 뽑아서 애굽이라는 사막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악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뿌리채 뽑아 감옥이라는 돌짝밭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이란 꽃나무는 이 돌짝밭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란 나무 뿌리는 바위를 뚫고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7대 의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고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에게서는 실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뿌리를 박지 못할 땅이란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살려고 하던 조상은 한때 억울함을 많이 당하였지만 그 후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어제까지 진실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라도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면 그 시간에 불쌍해집니다. 삼손이 천하의 장수였으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 시간에 구리줄에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나귀로 전락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11절)

과거에 진실하였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진실하실 것이나 현재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 갈 것이지만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유다 민족이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보내어 구원하겠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나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주위를 둘러서 흐르는 유브라데스강을 나는 듯이 독수리의 깃발을 들고 건너가서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웬걸 그렇게 될까"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고 미래에 될 일도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므로 절개를 지키면 영육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만 기억하는 자는 교만하여 당장 실수하게 되고, 과거에 못한 것만 기억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현재에 벌써 망한 자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여 조심하고 과거에 못한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400여 곳에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도 그대로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패역하고 완악한 죄를 범하였으면 핑계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인류 역사를 살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할 때에 망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을 생활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옛날에만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진실하실 것이므로 성경에 예언한 장래의 일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오늘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잠시 후에는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 성 관 목사

성찬을 위한 시간

(고린도전서 11:23-34)

"…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

다양한 성찬의 모습

전 세계의 교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찬을 기념합니다. 매주 성찬을 기념하기도 하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하기도 합니다. 루터교회는 두 주에 한 번씩,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기념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얼마나 여러번 하느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찬은 '누가' '어떻게'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나 모든 등록교인들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또 세례나 등록에 관계없이 전 출석교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교회는 강단에 자리를 마련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강단 앞으로 나아가 성찬을 받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의 행위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영혼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찬의 목적

그러면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2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해서 바쳐졌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따라서 성찬을 나누는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구약시대에는 유월절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끊임없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계 5:9).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 죽음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흠없는 변호인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총에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므로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으로 새 계명을 세우심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히 여기도록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 사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주께서 배반을 당하시는 날 저녁에'(23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어 축사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하신 후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하라"(2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를 쏟으시는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새 계명'을 세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계명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계명'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 의 선포,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당하신 고통 등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죽음의 피는 세상 죄를 말끔이 씻으시는 유일한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는 예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개인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개개인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깨끗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을 고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재림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음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으로 사라질 소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아멘!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 없으신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점검과 고백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28-31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므로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성찬을 먹는다면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 등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자신을 살피시고 죄를 고백하시는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개인적인 오류들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계 선교 / 천국일꾼 양성

세계 선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 경 진(캐나 단기선교단원)

약 2주 동안 캐냐에 머무르면서 맛사이족을 대상으로 선교지 탐방, 어린이 사역, 의료전도 사역을 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주일이라 도착하자마자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는 한창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와 독특한 멜로디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고 정신이 없었다. 한 명이 선창을 하면 대부분 따라서 같은 음을 반복하며 참으로 열심히 찬양을 한다.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 곡을 연달아 돌아가며 부르며 그 칠 줄을 모르고 온몸을 흔들면서 자유롭게 찬양을 부른다. 도중에 손을 들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찾아 읽고,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찬양하다가 … 일정한 예배순서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순간 이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과 경배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맛사이들은 주일예배를 위해서 2-3시간씩 교회까지 걸어와야 한다. 그리고 2시간이 넘게 예배(이들에게는 축제라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를 드린다.

맛사이들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산다. 농사는 짓지 않고 소와 염소를 키우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가축의 수에 따라 빈부가 나뉘는데 그들은 물질에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주식은 차이(우유와 홍차를 섞어 끓인 음료)와 우갈리(옥수수가루로 백설기처럼 만든 떡), 짜파티(호떡같이 생김)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다. 집은 소똥으로 만들었고 매우 좁은 공간에서 십여명이 생활한다. 물이 귀한 곳이라 거의 씻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 우리나라의 100년 전보다도 훨씬 못한 생활수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점점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곳에서 피땀을 흘리신 선교사들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게 된다.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을 때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참으로 멋있고, 의미 있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복음의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영적, 인적 축복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만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하겠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편지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족속을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충현교회와 선교위원회에 감사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주간충현을 통해 늘 교회와 선교위원회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열정들을 봅니다. 특별히 단기선교와 평신도선교훈련, 외국인 선교부 사역은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슬림 권에서 몇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요. 외 선부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께서 보내시는 더 많은 종족들과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길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온 교회가 귀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맹장수술로 알았지만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 수술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않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담당 의사의 말은 주님이 제게 새 삶을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신앙고백으로 채우려 합니다. 제가 더욱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미전도종족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9년 8월 26일 박경희 올림.

천국일꾼 양성

교회학교에 파송된 주님의 작은 천사들 — 보조교사

허 용 구(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학부 보조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유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47명의 보조교사를 파송하였다. 특별히 대학부 소그룹들 중에 '아둘람' 과 '돌베개' 와 '봉공방' 에서 협조를 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보조교사로 가는 것을 기피하려 하였던 대학부원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녀와서는 오히려 주님의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간증하였다. 보조교사라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를 가르치지는 못하였지만 직접 몸과 맘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본 보이는 좋은 기회였다. 다녀온 지체들 중 5명 이상이 정교사로 섬기겠노라며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서 이 또한 감사드린다. 그들의 손길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자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해외로 단기 선교 가고 낙도와 오지로 전도는 가면서 왜 교회학교 교사로는 가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젊고 성경말씀에 능한 일꾼들을 각 부서와 연결시켜서 교사로 섬길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져 보조교사 사역이 이뤄진 것이다. 대학부원들이 더욱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소서" 라는 지속적인 헌신된 고백과 말씀 앞에 섬기려는 자세를 위해서 훈련되기를 소원한다.

보조교사 여름 사역 부서	인원
유년부	10명
소년부	7명
중등1부	7명
중등2부	14명
중등3부	4명
고등부	5명

귀한 소망과 기대감 얻은 사역

박 효 열(유년부 성경학교 보조교사)

나는 7월 16일-17일에 열린 유년부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유년부의 문을 두드렸다. 저녁에 진행하게 된 천로역정 십자가 코너를 내가 준비하게 되었다.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장소는 교회 옆의 놀이터였다. 계단을 골고다 언덕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힘을 모아 십자가를 같이 들어 계단, 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워 두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며 회개 기도를 하도록 시켰다. 또한 그들이 분명히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켰다. 아이들은 예상외로 질서도 잘 지키고 열심히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서 흙바닥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참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이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회가 1박2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을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열심히 이를 닦고 몸을 씻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정말 해맑고 순수한 모습들이 가득했다. 이튿날에도 물풍선 300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짐 나르기, 응원단장까지 하게 되어 쉰목소리로 목청을 질러야만 했다.

아이들의 이성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깊게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이들이 자라서 충현의 기둥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나 귀 했다. 또한 그들을 인내심으로 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소망이 느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 진 우(소년부 성경학교 보조교사)

소년부에서 보조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 생각하는 것부터 너무 다른 소년부 학생들을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접수를 받고 안내를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이 조심스러웠다. 내가 초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혹시 내 행동이나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활발했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보였다.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 얼마나 힘드실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박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사랑을 많은 선생님들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갚지는 못하겠지만 꼭 갚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금은 아직 어리고 더 준비되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꼭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키우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있을까. 소년부 수련회에서 보조교사로 보낸 1박2일은 단순히 봉사하고 온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이었다.

자녀 출가시킬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혼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 부모와 당사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고심한다.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좋을지 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을지를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답이 있다. 주님이 파제를 주실 때는 답도 같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탓이다.

우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쩌면 이 권유는 자칫 진부하게 들리기도 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 지금 기도하라. 우리는 어떤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그렇게 오랜 기도 끝에 얻은 배우자가 세상의 잣대에 맞춰 얻은 배우자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 왕자를 만나려면 먼저 공주가 되어 있어라. 동화 속의 왕자는 반드시 공주와 경혼한다. 어쩌다 예기치 않게 왕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행운을 잡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누누히 강조하셨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내가 순적한 믿음을 소유해야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이 반듯해야 반듯한 사람을 만난다. 더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라. 결혼은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에 대해 기대하라. 새로운 형태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라.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나누고 그 새로운 계획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늘 궁금해 하라.

결혼은 결코 무덤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흔들어주는 요람을 벗어나 온갖 아름다움이 펼쳐진 들판으로 나가는 일이다. 때로는 비바람치는 들녘에 홀로 서서 흐느껴야 하는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다.

(정연희 기자)

자녀를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

김 금 순(집사, 1교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예정과 은총 가운데 두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케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년 전 남편이병영 집사의 사업 실패로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묵묵히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남편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때가 가장 힘든 사춘기였지만 한번도 반항도 불평도 투정도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큰 아들 남기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로서는 자녀를 유학보낼 꿈도 꾸지 못하면서 3년 동안 남편과 저는 새벽마다 남기 군복무 마치고 제대 후 유학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전화로 남기를 제대 후에 미국으로 보낼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남기는 제대 후 곧바로 미국으로 가 산업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제과점에서 빵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팔다 남은 빵을 공원에서 자판을 펴놓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면 성전에 나가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면서 힘든 순간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믿음의 가정에서 예쁘게 성장한 신부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목사님의 승락 가운데 1995년 6월 22일 충현교회에서 축복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의류회사에 근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부는 회계사로 근무하며 지금은 기다리던 사랑의 열매를 태교 중이랍니다.

둘째 남철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미8군 부대 안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임마누엘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큰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진정한 소망 속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최선의 효도는 부모님을 소망부로 모시는 것

△ 두 손을 맞잡고 어깨를 감싸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회원과 교사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70세 이상 성도는 7백명이 조금 넘는다. 이들 가운데 소망부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70% 정도. 나머지 분들은 거동은 가능하나 건강상 혹은 집과 교회의 거리상 혼자 나오시기 어려우셔서 자녀손들과 함께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 소망부에 참석치 못하고 주일예배만 드리신다. 또 거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고로 나오시지 못하신다.

교사들은 최대의 효도가 부모님을 소망부로 모시고 나와 그분들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교사들의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주장은 70대 이상의 성도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하늘나라에 가까이 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 주일 집회시마다 지도 이종대 목사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자기 반의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 드리고 또한, 늘 그것을 확인하여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도록 도와 드린다.

소망부에서는 심방 활동이 특히 두드러진다. 뇌졸중이나 골절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결석 중인 회원들을 최순복 전도사님과 심방과 교사, 담임교사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심방을 한다. 장기간의 투병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있는 회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랑의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북돋우어 이들이 병상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주일 소망부에 나오시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장기 결석생들이 이렇게 심방을 받으시면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신다.

교사들은 자녀손들이 바쁜 교회 생활 중에서라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을 매주일 낮 12시 15분 갈릴리홀에서 집회를 갖는 소망부로 모셔다 드림으로써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남은 생을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을 주일이 아닌 날 교회 아닌 곳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교사들은 주일에 반원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묻고 그들의 생활을 보살핀다.

다시 살려 주신 하나님

김 준 자(권사, 6교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하나님,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에게 사랑의 매를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하며 내 고집만 세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침상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많은 회개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수술로 인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심자가의 고통을 만분의 일이나마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불충분한 것 용서하시고 내 힘으로 살려는 악착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아 세상과 싸운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0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세상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당회로부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남녀집사님들, 권찰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것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랑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주신 분들에게 만 배나 흔들어 채워 주시고 영육간에 부자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병원비를 채워 주시고 특히 6교구 여전도회와 바울전도회에서, 또는 개인별로 도와 주신 것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맙고 감사함을 기도로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남은 생애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갈 것을 결심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 3:4).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Seminar for All Pastors in Korea

'성교의 회복-성경해석과 복음적 설교'

제2회 목회자 세미나

나의 주를 사랑하는 이의 입이 되신 여호와의

1999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된 제2회 목회자 세미나가 끝났다.
강사들은 섬기는 자원봉사 선도들과 250여명의 참가자들 모두에게 인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교회와 봉사자들, 강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전반적으로 매우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내적인 깨달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세미나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강사들의 강의 요약과 참가자 소감을 싣는다.

강의 요약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리차드 프래트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 정보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지식주의에 빠지고, 감정만 전달하게 되면 감정주의에, 그리고 명령만 전달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정보나 감정, 그리고 특정한 행위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설교한다고 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 복음을 설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구약에서 '복음'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이다. 곧 적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 적이 파멸되고 우리가 번영하게 되었다는 소식, 적이 죽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곧 복음이다. 이 전쟁과 관련된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는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했다. 예수님은 이 소식, 곧 원수의 패배와 우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시되 말씀과 행위(곧 십자가를 지시는 은총의 행위)로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특히, 구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곧 메시야,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 기름부음과 관련된 구약의 세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따라서 이 세 직분 및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되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본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 직분의 마지막 성취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신다. 구약의 왕들은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 자신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온 땅에 편만케 하심으로 자신이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광범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당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존하라"

리차드 크레이븐

예수님의 사역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역은 기적과 귀신 쫓아냄, 그리고 설교로 이루어졌다. 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삶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림'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뿌림'에 있다. 곧 말씀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은 말씀의 선포, 곧 설교와 더불어 임한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말씀의 선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설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전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선포를 방해하는 '나' 개인의 매력적인 요소들은 제거되고 포기되어야 한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나의 허물과 잘못 등 나의 도덕적 결함과 죄, 습관상의 오류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몸의 가시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상적이지 않은 인물로 보이게 하는 그것, 내가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게 만드는 그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지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부인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오직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의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 옮겨지는 것이다. 곧 믿음에 의한 설교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확신해야 하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한다. 바로 바울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는 당대의 헬라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의 전달방식을 포기함으로 조롱받는 자리를 스스로 택했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렸다.

참가 소감

장 승 현(목사, 인천낙원제일교회 부교역자)

저는 동기 목사의 권유로 참석했습니다. 물론 1회때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내용이 참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요리된 생선을 얻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 등을 보고 느끼는데 그치는 다른 세미나들과는 달리 성경의 복음적 해석의 틀과 복음적 설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이번 세미나가 저에게는 더욱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운영도 전체적으로 매우 차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시간시간마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김 종 석(목사, 대전 대덕제일교회 담임)

저는 지난 1회부터 참석했습니다. 당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적 해석에 관한 유익한 강의로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강의 역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구약을 복음적으로 설교한다고 할 때, 대개는 인위적인 비약이 가해진 것이 사실인데, 금번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신학적인 토대를 얻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세미나들 대부분이 양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단회적 세미나인 반면, 충현교회 세미나는 말씀과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다뤄 준다는 면에서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특별한 세미나에 보다 많은 교역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기적인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제가 회원으로 있는 다른 모임의 세미나와 겹치는 바람에 약간 갈등하다가 결국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충현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경 각권 중심의 세미나도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상 천(목사, 세곡교회 담임)

얼마전 노회 시찰회 목회자 모임에서 김성관 목사님께서 권유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교회 교역자 전원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신학교에 재입학한 것 같은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신없이 목회활동에 전념하던 중 소홀히 했던 부분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하여 희미했던 부분들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저의 목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강의내용도 좋았지만, 일단 충현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모든 참석자들을 무척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섬김의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세미나를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백 창 원(목사, 광염교회 담임)

전에, 친구를 통해서 프래트 교수의 강의내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난 이 세미나 광고를 보고나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동안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라 약간 버거운 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 유익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적 접근이 명료해졌고, 설교의 사명에 관한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다듬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차분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학부모 초청좌담회

지난 주일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난 좌담회때의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도사님의 강의도 들었다. 전도사님은 강의를 통해 가정은 또 하나의 성전이며 성경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지 말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기로 키워야 하며 가정과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가는 때에 주안에서 믿음에 기초한 가정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가길 원한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바울과 빌립보교인들의 사랑을 배웠어요!

8월 22일 '서로 돕고 사랑해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위로해 준 것을 배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흔들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배워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기쁨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닌 어려운 일, 슬픔도 나누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부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치부
'하나님만 섬겨요'라는 뜻이구나!

오늘도 주님 주신 어린 생명들의 활기로 가득합니다. 십계명 중 제일 처음 계명은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전도사님의 설교에 귀를 쫑긋 세워봅니다. '하나님만 섬겨요'라는 뜻이구나! 배우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강대상 앞 휘장에는 어느새 '성경퀴즈대회'라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오늘(29일)은 성경퀴즈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맑고 귀한 영혼들이 말씀 위에서 바르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유년부
멋쟁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키가 아담하시고 덩치도 아담하시고 큰 눈에 안경을 끼신 분이 계시지요. 늘 그분은 아이들을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아이들과 다정하게 놀아 주십니다. 선생님들께는 그분은 스승님이시랍니다. 선생님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끔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쁜 짓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유년부에 오시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냐요. 유년부 교사실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맨 끝에 앉아 계신답니다. 이분의 성함은 임기채 장로님이십니다. 유년부 장로님 너무 멋지시지요. (박효정 통신원)

청년2부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교제

무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농어촌 전도활동을 다녀와서 많은 열매를 거둔 청년2부는 이제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복막염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말레이지아의 박경희 평신도선교사님과 물질과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선교사님께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드렸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청년2부의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물질로 기쁨으로 내어놓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리라. (백명자 통신원)

장년3부
영과 육의 건강에는 긍정적 사고가 특효약

60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삽시다 서로 인사함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60대가 되어서야 정신건강에 유념하여도 늦지 않으나 젊어서부터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려면 종교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연장된 수명을 아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년3부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염미숙 통신원)

1교구
가금교회에서의 전도사역

충주시 가금면 가금교회에서의 농어촌 전도사역은 농번기로 인하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부근에 있는 불교로 무성한 마을의 어린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부의 11명이 특별히 지원되었다. 성경학교는 예배, 성경공부, 인형극, 주님께 드리는 편지 쓰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이미용팀들의 수고의 손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이번에 자원한 모든 분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도 봉사 활동이 되었다.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리라. (임통개 통신원)

7교구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우리의 믿음

더위만큼이나 믿음의 열기로 농어촌 전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다. 경기도 광주 귀여리교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집집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어진 역할을 분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7교구를 통하여 확장되어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7교구 통신원)

나·를·바·꾼·한·마·디

내가 네게 준 것이 무엇이냐

김 희 숙(집사, 11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마태복음 14장 17-18절)

참으로 오래 방황하고 갈등하였다. 내가 꼭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좀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할수록 오히려 어렵고, 노래한다는 것이 두렵기조차 했다. 그리고 노래는 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어디 노래뿐이겠는가.

김성일님의 신앙간증집을 읽고 있었다. 오천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서 주님은 왜 나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셨는지, 왜 내가 노래로써 찬양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게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여! 저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대지도자강습회를 다녀와서

함께 배우고 개선해 나간 강습회

김 성 희
(순복음남제주교회)

강습회를 앞둔 4주 전, 교회 사모님께서 제2회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를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기회에 다녀오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셨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지만 좀더 영적인 찬양 반주를 하고픈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계획을 변경했다.

'성가 합창 문헌' 시간에는 새로운 곡도 배우고 찬양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도 서로 아끼지 않았다. 실기 개인 레슨 시간에는 여러분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찬송가 반주와 성가반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고 실습도 하면서 알차게 임했다. 개인적으로는 반주할 때 근음(베이스)과 주선율을 가져가는 소프라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기 분반 시간은 공개레슨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지적도 받고 고쳐나가기도 했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질실히 느낀 것은 예배시간에 드려지는 반주가 노래를 위한 반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경험과 연습도 필요하지만 참 기도의 시간과 참 예배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외에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창경연대회는 집에 돌아와서도 긴 여운을 남겼다. 내가 속한 조의 지체들을 좀더 아끼고 섬겼다면 더 나은 하모니로 찬양드릴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었다. 우리에게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인 '찬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린다.

강습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김 공 주
(대구 대신대학교)

여름이 되면 수련회가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설레임이었던 것이 제1회 강습회 참석 이후 충현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고 드디어 제3회 강습회를 위해 수련회에서 하루 일찍 나와 서울로 향했다.

3박4일이란 짧은 일정동안의 강의들은 대학교 한 학기 분량 만큼의 귀한 시간들이었다. 배울 수 있는 기쁨, 믿음의 식구들과의 만남, 모기에게 물리지 말라고 피워주신 모기향과 잠자리, 이번엔 특별히 복지관의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다. 또한 1일 부흥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금요집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현교회를 향한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향하신 귀한 계획하심들에 가슴이 떨렸고 특히 그 날 반주하신 선생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 편성이 일찍 안되어 조별끼리의 교제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교통의 시간에 대해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서야 하는 지도자라는 위치를 더욱 더 실감케 한 강습회를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과정을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들, 귀한 지체들께 아주 많은 감사를 드린다. 이 강습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큰 부분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많은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돼야 하겠다. 이 귀한 배움들을 위해 지극히 작은 것을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식구들과 또한 배움의 지체들에게 많이 있어지길 소망한다. 이 강습회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마땅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교회소식 / 목·장칼럼

알 림

1. 장학헌금 안내
   오늘 1-5부예배시에 드립니다.
2. 탁아부 반주자 모집
   · 과정 : 초급 과정(3개월)
   · 시간 : 매주일 12:30-14:00
   · 장소 : 탁아부실
3. 에바다부 수화교실 안내
   · 시간 : 주일반, 평일반(화, 목)
   · 과정 : 초급, 중급, 고급반
   · 신청 및 문의 : 에바다부
   · 개강 : 9월 19일

모 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 31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 30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사랑부실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선교관 301호
5. 제2교구 협의회
   · 일시 : 31일(화) 18:30
   · 장소 : 칼빈홀
6. 교정전도회 월례회
   · 일시 : 9월 5일(다음 주일) 15:00
   · 장소 : 갈릴리홀
7. 실업인전도회 월례회
   · 일시 : 30일(월) 19:00
   · 장소 : 베다니홀
8. 권사회 전체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갈릴리홀
9. 권사회 임원전체 기도회
   · 일시 : 9월 1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12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교육관 314호
2. 베드로 3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교구모임장소
3. 요한 14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2:10
   · 장소 : 칼빈홀
4. 루디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 9월 3일(금) 11:00
   · 장소 : 베다니홀
5. 마리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 9월 3일(금) 연합구역예배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별 세

1. 노옥례 성도
   (이신자 성도 모친, 1교구 충현3구역) / 20일 별세, 23일 장례
2. 김병준 집사
   (13교구 등촌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3. 이수자 권사
   (6교구 오금현대구역) / 25일 별세, 27일 장례
4. 이규호 성도
   (17교구 상하대원구역) / 27일 별세, 30일 장례

결 혼

1. 송정헌 군(송태익 씨의 아들)과 백원경 양(백봉학 집사, 이근덕 집사의 딸, 1교구) / 9월 2일(목) 14:00 사랑의 교회 본당
2. 김민철 군(김영택 집사, 박판례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송연임 양(서춘실 집사의 딸, 3교구) / 9월 4일(토) 13:00 갈릴리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박형준 성도, 황옥진 권찰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대교A 3-913 ☎ 786-1969

사무국 직원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근무직 및 자격
   ① 경리직 - 23세 미만의 상고를 졸업한 여자 세례교인
   ② 경비직 -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 세례교인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소개서
   ④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서류 제출 마감 : 1999년 9월 7일(화)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번)

◆ 9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9	5	이승철	박인건	진홍용	김광남	최명환	김의철 장로	김숙기	윤병인
	12	임기채	이종섭	김단용	박영식	이갑재	김달현	김 순	심효숙
	19	김춘권	이정우	황영일	김영수	마성락	정래부	김양자	이규숙
	26	정홍식	한송규	엄필성	김환기	우기전	이부성	김연옥	이명자

충현 중보의 창

1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 4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4 성경연구원, 전도훈련원, 선교훈련원의 각 강의에 참여함으로 더욱 헌신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5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6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7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8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9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59	최기성	2	소망부	최영혁(2)	1171	박금옥	15	한 나	오복순(15)	1183	포르테즈	18	영어교육	
1160	최종열	4	베드로	박숙정(14)	1172	서동석	1	사랑부		1184	부트	18	영어교육	
1161	이계회	4	청년2부	박숙정(14)	1173	이민주	1	사랑부		1185	마크히키	18	영어교육	
1162	정 준	13	바 울		1174	김가은	3	사랑부		1186	캐롤히키	18	영어교육	
1163	박회숙	13	루디아		1175	윤태식	4	사랑부		1187	쿰부케	18	영어교육	
1164	신차순	13	소망부		1176	신중원	12	사랑부		1188	엘리자베스	18	영어교육	
1165	임유성	14	루디아	김점순(16)	1177	문현준	12	사랑부		1189	김광호	19	대학부	
1166	박옥숙	14	루디아	김점순(16)	1178	오재옥	12	사랑부		1190	최선오	19	대학부	
1167	전수현	19	청년1부		1179	이원종	13	사랑부		1191	박병언	19	대학부	
1168	임창호	19	청년1부	이진규(7)	1180	전지인	13	사랑부		1192	김용래	19	대학부	
1169	김학출	19	고등부	김성율(1)	1181	오 현	14	사랑부						
1170	배성식	19	대학부		1182	유수민	14	사랑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섬김의 능력

지난 주 월, 화, 수 제2회 목회자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본당 로비에도, 본당 1층 휴식 장소에도, 예배준비실에도, 식당에도 가득했습니다. 참석한 교역자들은 충현 성도들의 겸손한 섬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관한 제3회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돌아간 전북 정읍의 한 자매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자매님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 강습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웅장한 교회당에 다니는 충현의 성도들은 어쩌면 거만하지 않을까 하는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모든 분들의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겸손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또한 자신이 불과 5-6명밖에 되지 않는 성가대를 이끄는 지휘자이지만 겸손 가운데서 자신을 훌륭한 지휘자로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 그리고 다 큰 처녀인 자신이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강습회를 통해서 배운 겸손한 섬김의 본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이 눈 앞을 가릴 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행하는 겸손한 사랑의 섬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많은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의 흔적이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또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기·는·분·들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윤명식 새가족부 부장	김의철 제2교구장	조선근 출판국장	김은호 교구위원장
마성락 소망부 부장	김차생 선교위원장	김경칠 탁아부 부장	우기전 건축위원장
손동운 중등3부 부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선교위원	정하우 기획위원장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박승준 제12교구장
엄필성 장년3부 부장	송기홍 봉사위원장	강은원 사랑부 부장	강모용 장년2부 부장
오정헌 예배위원장	최성현 제10교구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서동석 초등부 부장	송환창 교육훈련원 부원장	정운석 제11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아멘찬양대장	김종구 유아부 부장	최무길 중등2부 부장
김천채 제18교구장	이창호 제8교구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전도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제5교구장	손경수 청년2부 부장
이종국 행정위원	윤성철 당회 부서기	김여순 제7교구장	이하영 제17교구장
박인건 제13교구장	김인관 제6교구장	이병옥 장년1부 부장	안종욱 제14교구장
이인상 소년부 부장	최명환 재정위원	임무천 고등부 부장	이종섭 유치부 부장
최기홍 성경연구원 원감	이승철 기획위원	이갑재 제15교구장	진홍용 에바다부 부장
전홍렬 제9교구장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김단용 중등1부 부장	황영일 제4교구장
손 철 시온찬양대장	한송규 제1교구장	임기채 유년부 부장	김춘권 청년1부 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대학부 부장	김환기 신혼가정부 부장	

■ 부목사
이홍성 김회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이집트) 안석렬(수리남) 김영대(수단) 정은회(케냐)

■ 강도사 박인기 염현일

■ 여전도사
정연회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회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복지관 가나홀(Cana Hall)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4:40	본당